

# 주사랑교회 소식

##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육의 건강한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 2. 삼위일체주일 및 성결교회주일

오늘 주일예배는(5.26)은 삼위일체주일 및 성결교회주일로 지킵니다.

## 3.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6월 1일(토) 새벽예배는 첫날맞이 월삭예배로 드립니다.

## 4.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경기서지방회)

일시 : 2024년 6월 15일(토) 오전 9시 ~ 오후 5시  
장소 : 세한교회 비전센터 4층 (수원시 권선구 일월로 21)

## 5. 성도 동정 / 군 입대

오현진 형제가 6월 11일(화) 군 입대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군 장병 생활을 위해 축복과 중보 부탁드립니다(오동영·임명숙 집사의 차남).

## 6. 전교인 전도 / 슬러시 기계 사용

매주 금요일 오후 3-6시에 전교인 전도가 교회 앞 공원에서 있습니다. 슬러시 기계 자율적인 사용은 매주 주일 사용할 수 있어요.

## 7. 구역예배 일정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구역모임이 있습니다.  
금주 5월 30일(목) 오전 11시 임명자 집사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 날짜와 시간 변경은 담임목사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주일도 가능! )

## 8. 2024년 5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 음력 3.23 ~ 3.24 )

5/18(토)-임명자 집사(-4.11)    5/25(토)-김선국 형제    5/27(일)-문재효 형제

## 행사 계획

날짜	행사 내용
05/26	삼위일체주일 / 성결교회주일
06/01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06/02	농어촌 선교주일
06/06	산상기도회 (한국순교자박물관)
06/11	오현진 형제 군 입대
06/15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06/16	여름사역을 위한 준비모임
06/16	특수전도주일 / 통일선교기도회
06/23	한국전쟁 74주년 기념주일
06/30	선교한신예배 (모로코)
07/01	첫날맞이 월삭예배
	통일선교후원원 전문과정(2차)
07/07	매추감사주일 (성찬예식)

## 주일 사랑 운행

요일	운행 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 예배안내

구분	시간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주일학생부예배	낮 1: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0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3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 찾아오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 주일대표기도



- 05/26 임명숙 집사
- 06/02 김혜숙 권사
- 06/09 정애자 권사
- 06/16 이가를 관찰
- 06/23 박제연 집사
- 06/30 이광근 안집사
- 07/07 임명자 집사
- 07/14 임명숙 집사
- 07/21 김혜숙 권사



주사랑 7권 21호 창립 2017.11.25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2024년 표어 (행 9:31) **성령과 동행으로 평안과 부흥 누림**  
은혜와 진리의 말씀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은사공동체  
섬기고 전하는 사랑공동체



# 성결교회주일 삼위일체주일 선교헌신주일

# 한성도 한영혼 주께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4)

이름 :

- ### 주사랑교회 사명서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한승훈 목사 (010-4724-3562)  
교육간사: 임명순 사모 (010-8177-0617)  
찬양악동: 아하바  
피아노: 임명순 한은총  
드럼: 한희락 한태민  
예배영상: 한성결  
대표기도: 강혜숙 권사 (다음주: 임명숙 집사)  
헌금위원: 이재희 안변 (다음주: 이재아 야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618, 3층 301호 (세류3동, 성원(송상가))  
Tel. 031 234-1691  
Fax. 070) 4015-1691  
0504) 472-3562  
<https://jusrang.org>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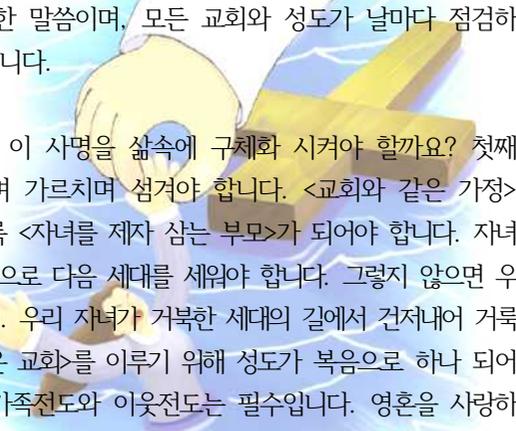
- ① 사람의 편의적인 방법으로 법궤를 모시려고 했다가 저주받은 제사장 웃사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방법으로 법궤를 모셔 복 받은 인물은? (삼하 6:11)  
여호와와 궤가 가드 사람 ( )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 )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 ② 하나님의 법궤를 즐거운 마음으로 모시고 오는 다윗을 향해 그의 아내 미갈이 품은 악한 마음과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삼하 6:16, 23)  
<sup>16</sup>여호와와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 )  
<sup>23</sup>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 )이 없으니라
- ③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고백한 다윗을 말리시며 오히려 축복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삼하 7:12~16)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 )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 )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 )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 )가 되고 그는 내게 ( )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 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 지는 아니하리라 네 ( )과 네 ( )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 )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 ④ 다윗은 집권 후 대외적으로 주변의 대적들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의 국격과 지위를 공고히 세워가는데 그 비결을 무엇이라고 하나요?(삼하 8:6, 14)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 ).
- ⑤ 다윗은 그의 생명의 친구 요나단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의 혈육을 찾아 은혜를 베풀게 합니다. 그가 찾아낸 요나단의 아들은 누구인가요?(삼하 9:6~7)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 )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 )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 )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 )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 ⑥ 다윗에게 귀환하려고 왔던 아브넬을 다윗은 받아들여려고 환대하였지만, 다윗이 눈치 채지 못하게 군대장관 요압이 죽인 심적 이유는? (삼하 3:30)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 )을 죽인 까닭이었다

- 금주 암송 말씀 / (식사 전에 한 번씩 자녀들과 말씀을 읽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명령입니다. 이를 <지상대명령>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명령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왕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 받았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18절). 따라서 이 명령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명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자 사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적 명령, 다른 하나는 교육적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모든 세대를 제자 삼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며, 모든 교회와 성도가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주사랑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이 사명을 삶속에 구체화 시켜야 할까요? 첫째는 가정이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가르치며 섬겨야 합니다. <교회와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부가 세대의 구원을 이루도록 <자녀를 제자 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삿 2:10). 우리 자녀가 거북한 세대의 길에서 건져내어 거룩한 세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둘째는 <가정과 같은 교화>를 이루기 위해 성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전도와 이웃전도는 필수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며, 사랑과 인내로 복음적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셋째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북한선교'의 문을 기도로 열어가며, '해외선교'의 장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마음에 세기고 헌신하는 가정과 자녀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구역예배 · 가정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가	..... 찬 420장	다	같	이
대표기도	.....	임명자	집사	
성경봉독	..... 열왕기상 7:27~39 (구 519)	임명숙	집사	
<b>모두가 존중받고 존중하는 주사랑 공동체</b>				
삶의나눔	.....	다	같	이
합심기도	.....	다	같	이
헌금찬양	..... 복음성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	같	이
주기도문	.....	다	같	이

**■ 들어가는 말**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의 외부에 세워진 열 개의 낫 물두멍과 낫 수레에 집중합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거나 제사의 임무를 담당하기 전, 손과 발을 씻는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 물을 담아두는 용기입니다. 이는 예배자의 육체적 정결함과 함께 회개를 통한 영적인 성결함이 필수적임을 교훈합니다. 낫 바다가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이 물로 씻도록 마련되었다면, 물두멍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제물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대하 4:6). 또 물두멍을 받쳐주는 기구로 바퀴가 달린 낫 수레를 언급합니다. 이 수레는 물두멍을 받쳐주는 받침대입니다.

그렇다면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마련된 낫 물두멍과 낫 수레를 통해 주사랑교회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가기 위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로 이루어진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도 내소와 외소 그리고 뜰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내소와 외소는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처럼 하늘나라의 성전과 보좌를 상징하기에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성막과 솔로몬 성전의 뜰에 사용된 재료는 비록 낫으로 장식했지만, 지상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에 성전과 동일한 그룹과 꽃모양의 장식이 성막 기구 곳곳에 가득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화려함이 회벽과 문만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 아닙니다. 낫 수레에도 ‘그룹’ 모양이 가득 새겨져 있습니다.

낫 수레는 물두멍을 바치는 바퀴달린 받침용 도구입니다. 그 쓰임새와 용도가 다소 중요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필요 없는 도구가 결단코 아닙니다, 지성소에 있는 그룹의 모양이 성전 뜰에도 가득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성전 기구들에도 가득합니다. 성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설계한 의도가 돋보입니다.

주사랑교회 공동체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교제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성도는 없는지 부지런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항상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도록 섬겨야 합니다.

**둘째, 성실하고 진실한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물두멍 자체보다는 물두멍을 바치는 낫 받침 수레에 대한 소개를 더 비중 있게 다룹니다. 낫 받침 수레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4큐빗(1.8m), 높이가 3큐빗(1.3m)입니다(28절), 받침 테두리를 따라 각 옆면에 낫 판이 대어 있었고, 그 판은 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낫 판 표면에는 사자, 소, 그룹(천사) 모양이 새겨있습니다. 받침 수레의 가장자리, 버팀대 판과 옆판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의 문양을 섬세하게 새깁니다.

받침에는 낫 바퀴 네 개와 낫 축을 달았습니다(30절). 바퀴의 규격은 각각 1.5큐빗(69cm)의 높이이며, 물두멍을 채우거나 비우기 위해 운반의 용이성을 염두해 두고 편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비록 낫 받침 수레는 물두멍을 운반하는 기구에 불과하지만 장식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소중한 보석을 제공하듯 심혈을 기울여 제작합니다. 명품은 디테일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명품 신앙 역시 디테일한 섬김과 헌신으로 완성됩니다. 명품 영성은 거창한 일보다는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 더욱 빛을 드러냅니다. 주사랑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결하고 진실한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성결하고 정결한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의 물두멍의 제작 재료가 독특합니다. “그가 낫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낫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중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출 38:8). 성막의 물두멍의 재료는 두 가지 점에 대하여 주목하는데, 첫째는 “낫”이고, 둘째는 “여인들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낫으로 만든 여인들의 거울은 당시 여인들이 자신을 모습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여인들의 거울이 물두멍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은, 제사장들과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단장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물두멍은 모세의 장막의 물두멍에 그려졌던 마음을 계승한 예배도구였습니다. 물두멍에서 씻은 제물이어야 제단에 바칠 수 있고, 바다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제사장도 제사를 집행 할 수 있습니다. 낫 바다와 물두멍의 제작 과정은 정결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정결은 무시할 수 없는 예배의 필수 요건입니다. 예배이든, 사역이든,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 결론**

성전의 공간과 기구들 중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이 그 기능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모든 사람, 모든 은사도, 모두 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봉사자와 헌신자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해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 시선이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합니다. 과부의 두 렘돈을 보신 예수님, 소년 목동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 고넬료의 헌신을 보신 성령님.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안목을 배워야 합니다. 작은 것에 디테일한 헌신만큼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섬겨가는 요소도 없습니다.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디테일의 차이에서 오듯, 명품신앙과 짝퉁신앙 또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그 섬세한 경건의 능력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서로 존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가 됩시다.